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11. 8.(수)

원희룡 장관, 대중교통시설에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지시

- ‘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기간(11.13~12.8)’ 중 대중교통시설 철저 방역·방제 실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1.7일(화)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‘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 대응회의’ 후속조치로서, ‘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기간(11.13~12.8, 4주간)’ 중 빈대 취약시설인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철저한 방역·방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, 철도, 항공 등 대중교통 시설별로 빈대 확산방지 및 방역·방제를 위한 주간단위 계획을 수립하고,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·방제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.
 - 철도 역사는 그간 주 1회 실시하던 역사 청소 외에 11.6일부터 방제 소독(주 2회)을 추가 실시하고 있다. 또한, 일반·고속 열차 내 시설(의자, 선반, 테이블 등)에는 진공·고온 스팀 청소 및 질병관리청 지정 약품을 활용한 방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있다.
 - 해외에서 들어오는 빈대 등 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 내 모니터링 키트 설치, 일일시설 점검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, 공항 입국장, 환승라운지 등 주요 구역 내 특별 예방소독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.
 - 또한, 항공기에 대해서도 기존의 일반 해충 방제에 더하여 빈대 방제 조치도 추가되도록 민간 항공사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.
 - 한편, 터미널시설 및 버스·택시의 청결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, 지자체와 관련 업계·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제활동을 강화해나간다.
 - 고속도로 휴게소는 11.9~20일간 수유실(206개), 화물차 라운지(52개) 등 시설의 일제 방제 및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, 11.21일부터는 일일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(한국도로공사)을 추진한다.

-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“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, 공단 등 유관기관에 철저한 방역·방제를 지시했다”라고 하면서, “국토부는 대중교통시설을 매개로 빈대가 대규모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장 이재평 (044-201-3804)
		담당자	사무관 최효준 (044-201-3786)
		담당자	사무관 김미리 (044-201-3791)

